

누가 내 어머니인가?

요한복음 15:9-17

2021 년 5 월 9 일

퀴즈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날짜들은 무슨 날인가요? 코소보 사람들은 2 월 첫째 주일, 노르웨이 사람들은 2 월 둘째 주일, 러시아 사람들은 3 월 8 일, 영국 사람들은 사순절 4 번째 주일,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3 월 21 일,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4 월 7 일, 헝가리 스페인 사람들은 5 월 첫째 주일, 폴란드 사람들은 5 월 26 일, 프랑스 사람들은 5 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12 월 22 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맞습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을 정하여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08 년, 그러니까, 113 년 전에 웨스트 버지니아, 그래프톤이라는 작은 타운에 있는, 성 안드레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나 자르비스 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 어머니 날을 국경일로 정하기를 요청했는데, 미 의회에서, 어머니 날 제정하면 장모님 날도 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나 자르비스의 끈질긴 노력 끝에, 1911 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어머니 날을 기념했고, 1914 년에,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국경일로, 5 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카톡으로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갔다 실은 내 아내의 권유였지만....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잖아요. 인생은 짧아요. 당신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아내의 그말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근데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나의 말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 녀도 사랑하잖아요.” 내 아내가 만나라고 한 다른 여자는 실은 내 어머니이시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벌써 몇년.. 일과 애들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 뵙지 못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같이 영화도 보고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의아해 하시면서 물었다. “무슨 일라도 생긴거냐? 혹시 나쁜 일은 아니지?” 알다시피 내 어머니 세대는 저녁 7 시가 지나서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나쁜 소식일거라고 믿는 세대가. “그냥 엄마하고 단 줄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싶어서요. 괜찮겠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덩덤하게 말씀하셨다. “그러자구나.” 다음 날 저녁 일이 끝나고 차를 몰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 금요일 밤이었고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에 휩싸였다. 첫 데이트를 하기 전에 갖게

되는 가슴 두근거림이라고나 할까.. 도착해서 보니 어머니도 다소 들떠 있는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벌써 집앞에 나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근사한 옛 코트를 걸치고, 머리도 다듬으신 모양이었다.

코트 안 옷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두분의 마지막 결혼 기념일에 입으셨던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이 애인을 기다리는 소녀 같이 환한 미소로 활짝 피어 났다.

어머니가 차에 오르시며, “친구들에게 오늘 밤에 아들과 데이트 하러 간다고 했더니, 모두들 자기들 일인 양 들떠 있지 뭐냐” 하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와 함께 간 식당은 최고로 멋진 곳은 아니었지만, 종업원들이 기대 이상으로 친절했다. 어머니가 살며시 내 팔을 끼었는데,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되신 것 같았다. 자리에 앉자 어머니가 “내 눈이 옛날 같지가 않구나” 하시면서 메뉴를 읽어 달라고 하셨다. 메뉴를 반쯤 보다 눈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향수에 젖은 미소로 나를 뵈히 쳐다보고 계셨다. “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한테 메뉴를 읽어 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엄마.”

그날 밤 우린 특별한 주제도 아니고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와 끊임없이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침내 대화의 밑천이 바닥이 났다. 빙긋이 웃으시며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에 또 오자꾸나. 단 다음번에는 내가 낸다는 조건이야.”

어머니를 다시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헤어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안고 볼에 키스하며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렸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멋진 저녁이었어. 그렇게 할 수 있게 말해 주어서 고마워.” “어머니와 좋은 시간이었던가 보네.” 아내가 말했다. “정말이지 기대 이상이었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사랑하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너무 순식간이어서, 나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어머니와 내가 함께 했던 식당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무래도 다음 번 데이트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 같구나. 정말 그럴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엔 너와 네 처가 둘이서 너와 내가 했던 것처럼 함께 즐겼으면 한다. 너희 식사비용은 내가 미리 다 지불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했던 그 날 밤의 시간들이 내겐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 지 네가 꼭 알아주면 좋겠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한 아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75 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의 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들을 창조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창조하셔서, 사랑 받게 살아가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은, 어머니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어머니 없고, 어머니 없이 내가 없습니다. 어머니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지만, 이런 저런 말과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상처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완전한 어머니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이해하려면,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잔나는, 웨슬리의 생각 그리고 사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수잔나 웨슬리도, 실수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실수도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실수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에,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리기도 하고, 어머니의 과오를 용서해 드리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예수님의 생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복음 2 장에 보며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첫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 있었던 그 잔치 자리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후원자였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아들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시다.” 라고 대답하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대로 하여라”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사역으로 엮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은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자 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 장 26-27)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또 그 옆에 서 있는 제자 요한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보세요,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가르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의 앞 날을 걱정하며,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효자 예수님이십니다.

1

그런데, 성경 학자들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적어도 4 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 그런데 당신의 동생들에게,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하지 않고, 왜 제자인 요한에게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기록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뿐 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혈연관계로 맺어진 모자 지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남으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모자 지간으로 승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넓히셨습니다. 혈연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된 주님의 제자 공동체, 즉 교회가, 또 다른 가족, 큰 가족임을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흡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3 장에 보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예수님의 답이,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입니까?” 그리고는, 당신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와 나의 누이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마리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와우 와우. 가족을 해체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혁신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리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삶의 폭을 넓혀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며 사는 제자들, 우리들은, 새로운 가족,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곧 교회 가족입니다.

결혼 전에, 침례 교회에 잠시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로스엔젤스 침례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거기 갔더니, 건삼 형제 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감리교회 다니면서 이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창연 형제, 경희 자매.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젊은 부부가, 아이들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를 먼저 알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이 들며는, 세례 예식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아이들이 속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가주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98 세 되십니다.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지난 13 년동안,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많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아왔는 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패트 로젤 어머니이 돌아가셨습니다. 웨어필드 그레이스 믿음 공동체에 속하신, 어머니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맘이 많이 슬펐습니다. 지금도 슬픕니다. 그 분이, 시편 23 편을 즐겨 암송하셨는데, 말끝 마다, 곧, 잔잔한 물가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곧 그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가셔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분 외에도, 70 대 80 대 90 대 이신 분들은 모두 제게, 많은 사랑과 후원을 해 주시는 어머니이시고 아버님이십니다. 6 월 6 일 교회 창립 65 주년 감사 예배를 뉴욕연회 비커튼 감독님 모시고 드립니다.

엘시 커르키스, 저희 교회 개척 멤버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 분을 만날 때 마다, 저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지난 65 년간,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몸이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주 안에서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는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요한 13:34-35)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큰 가족입니다 누가 내 누이이고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인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누이이고 동생이고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가족입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아멘 아멘.